

“커쇼 빠진 다저스, 류현진 2선발 예상”



류현진(32·LA 다저스)이 팀의 2선발로 평가받았다. MLB닷컴은 6일(한국시간) 다저스의 개막전 로스터를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다저스 선발진은 리치 힐, 류현진에 이어 마에다 겐타, 로스 스트리플링, 위커 블러로 구성된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빠진 가운데 류현진이 2선발로 배치됐다.

MLB닷컴 “어깨통증 커쇼, 개막전 어려울 듯”

리치 힐 1선발...기대 모았던 블러 5선발로 밀려

블러는 5선발로 밀려났다. MLB닷컴은 “다저스의 스프링 트레이닝이 중간 지점에 도달했지만 커쇼는 아직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며 커쇼의 개막전 등판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저스는 일찌감치 커쇼를 개막전 선발로 예고했다. 하지만 어깨 통증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19일 어깨 통증을 느낀 뒤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기대를 모은 블러도 시즌 준비가 더디다. 이 매체는 “블러는 지난해 투구 이닝이 급증해 올해는 천천히 몸상태를 끌어 올리고 있다. 빨라도

다음주까지는 실전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경기 등판이 늦어질 수록 개막전까지 몸을 맞추기도 어려워진다. 커쇼와 블러의 느린 출발로 힐과 류현진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 류현진은 시범경기에 2차례 등판해 3이닝 무실점을 거뒀다.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 올리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힐도 2경기에서 3¼이닝 2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한편, 다저스는 2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을 치른다.

뉴시스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26분까지 71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1-0으로 승리하며 1·2차전 합계 4-0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토트넘, 8년 만에 챔스리그 8강 진출

손흥민 71분 활약...16강 원정 2차전 도르트문트에 1-0 승리

손흥민(토트넘)의 소속팀 토트넘이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진출했다. 8년 만이다. 손흥민은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26분까지 71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공격 라인을 형성한 손흥민은 도르트문트의 강한 공세를 버티며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압박과 틈새 공약으로 승리에 공헌했다. 토트넘은 후반 4분에 터진 케인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둔 토트넘은 1·2차전 합계 4-0, 2연승으로 수월하게 8강에 진출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오른 건 2010~2011시즌 이후 8시즌 만이다. 당시 8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만나 탈락했다. 전반은 일방적인 도르트문트의 흐름이었다. 1차전에서 완패를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매서운 공세를 펼쳤다.

토트넘은 수비에 공을 들였다. 전반 슈팅 개수에서 1개-11개, 유효슈팅 개수 0개-5개, 점유율 35%-65%로 뒤졌다.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 3-5-2에서 수비를 5명으로 늘리는 5-4-1 전술 형태로 변경하며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잘 방어했다. 역습을 노렸다. 손흥민은 전반 31분 슈팅 기회에서 상대 오프사이드 수비를 뚫고 기회를 잡았으나 오른쪽 날이 골대를 벗어났다. 슈팅 순간에 상대 수비가 가깝게 밀었지만 반칙 선언은 없었다. 전반은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의 의도대로 0-0으로 끝났다. 쫓기는 것은 1차전에서 3실점한 도르트문트였다. 토트넘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이 빛났던 전반이었다. 후반 초반 급격하게 토트넘 분위기로 흘렀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케인이 균형을 깼다. 시스코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골문 빈 곳을 노려 도르트문트의 골대를 갈랐다. 도르트문트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결정적인 골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라멜라와 교체됐다. 토트넘은 이후 도르트문트의 반격에 실점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9일 지경 사우샘프턴과 리그 30라운드를 치른다.

뉴시스

레알 마드리드 충격의 탈락

감독·선수 모두 망연자실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실패

2018~2019 유럽 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자취를 감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감독과 선수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아약스(네덜란드)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1-4로 대패했다. 지난달 14일 원정 1차전에서 2-1로 이겼지만 이날 무려 4골을 내주는 부진한 경기력으로 무너졌다. 4회 연속 정상을 노리던 레알 마드리드는 1·2차전 합계 3-5로 뒤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했다.

산티아고 솔라리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 매우 슬픈 순간이라서 어떻게 입을 뗐다.”

주축 수비수인 세르히오 라모스는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다. 16강 1차전 막판 경고를 받은 탓이다. 8강 이후 라운드를 대비해 고의로 ‘경고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라모스는 관중석에서 동료들의 참패를 지켜봤다.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레알 마



드리드는 올 시즌 무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라 리가에서는 선두 FC바르셀로나에 12점이나 뒤져있고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에서는 이미 떨어졌다. 수비수 나초는 “망연자실했다.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라 리가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코파 델 레이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떨어졌다. 매우 힘들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니엘 카르발할은 “빌어먹을 시즌”이라는 과격한 말도 남겼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은 수년 간 지속됐던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모에스 감독은 영국 BBC를 통해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년 간 아주 좋았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떠났고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도 떠날 수도 있다”며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KIA양현중, 삼성과 평가전 무난한 투구

20이닝 1실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중(32)이 올해 첫 실전 신고식을 치렀다.

양현중은 5일 일본 오카나와현 온나손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평가전에 세 번째 투수로 등판, 20이닝 피안타 3탈삼진 1실점 피칭을 했다.

5회말 마운드에 오른 양현중은 다린 러프와 김동엽을 각각 우익수 뜬공,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후 야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박한이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해 이닝을 종료했다.

6회 역시 이하준과 김민수를 삼진으로 처리, 무실점 후투를 선보였다. 그러나 박해민에게 볼넷과 도루를 내준 후 김상수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고 실점했다. 이후 이원석을



디선 체크와 구위 점검을 한 후 마운드를 내려왔다. 투구수는 35개다.

KIA 선발 제이콥 터너는 30이닝 4피안타 3볼넷 4실점으로 난조를 보였다. 최고구속은 152km가 나왔지만, 제구력이 흔들렸다.

평가전은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2이닝까지 치러졌고 삼성이 12-8로 승리했다.

‘부상’ 황희찬, 최소 4주 결장·벤투호 소집 불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함부르크)이 허벅지 부상으로 최소 4주 이상 그라운드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축구대표팀 합류도 어렵게 됐다.

분데스리가는 6일(한국시간) “황희찬이 허벅지 힘줄을 다쳐 최소 4주가량 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5일 함부르크의 폴크스

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4라운드 그로이터 퀴르트전에서 전반 38분 왼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바로 베르카이 외조찬과 교체됐다.

이로 인해 이달 말 대표팀 소집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2일과 26일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차례로 평가전을 한다.



지역광명리매장소, 정문리빌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